

13월 월급 연말정산...아는 만큼 돌려받는 세테크 비법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미리 챙기세요

한국납세자연맹, 연말까지 혼인신고해야 배우자공제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해야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매년 변경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2019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연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연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단 공제받을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여야 하며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산후조리원 영수증-무주택확인서 챙겨놔야=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비용을 의료비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 해당 지급처에 개별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

담을 덜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를 넘기지 말고 제출해야 한다.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홈택스' 정보 미리 수정-연금지출 광고 주의=연말에는 세액공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연금지출상품 광고가 많은 시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10계명

- 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미리 확보.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
- ③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
- ④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 ⑤ 연금지출상품 가입 광고 주의를.
- ⑥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
- ⑦ 총급여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⑧ 고가의 지출은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판단해야.
- ⑨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야.
- ⑩ 군입대 자녀와 부모 자료제공활용등의 미리 받아야.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신용카드로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출을 내년에 할지 올해할지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 국제정환카드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를 초과했는지 미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핸드폰 번호가 변경됐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

다. 또 군에 입대한 아들과 따로 사는 부모는 미리 정보제공 활용동의를 받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장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12월내에 미리 챙겨야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한다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김장나눔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송중욱(오른쪽) 광주은행장이 지난 11일 동구 무등육아원에서 신입행원들과 김장 김치를 담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무등육아원에 후원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11일 동구 무등육아원에서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는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정은강 무등육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광주은행은 무등육아원에 후원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무등육아원 아동들을 위한 김장김치를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신입행원 40여명이 직접 담그는 훈훈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겨울, 임직원들이 김장나눔 봉사활동에 동참해 왔으며, 지난 11월 18일에는 순천시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에 1000만원 기부, 12월 4일에는 광주 북구청의 김장나눔 사업에 10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추운 겨울 지역민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앞장서고 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임직원들의 정성을 담은 김장김치가 추운 겨울에 지역 아동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따뜻한 양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우리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진정성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우리딸 가인이가 모델인 앞세주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도 고향집서 홍보 행사

"우리 딸 가인이가 앞세주 모델이 되었어라. 진도의 자랑 가인이와 전라도 대표 기업 보해양조를 낼 수 있게 앞세주 많이 사랑해주세요."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최근 전국 구 스타로 발돋움 한 트로트 신예 송가인(33·본명 조은심)을 '앞세주' 모델로 발탁하면서 지역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12일 보해양조는 최근 송가인의 고향인 진도를 방문해 지역 주민과 화합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보해는 진도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송가인의 모델 발탁 소식을 알리고 기념 행사를 가졌다. 또 송가인의 아버지 조연환 씨와 고향집 방문객들에게 감사편지를 나눠 주기도 했다. 송가인의 고향집은 주말마다 전국에서 수천 명이 찾는 명소가 됐다.

진도 군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출신 송가인을 모델로 선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아버지 조연환(가운데)씨가 송가인의 진도 고향집을 찾은 관광객에게 보해 '앞세주'를 나눠주며 홍보하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정했다고 보해 측은 설명했다. 보해는 지역민과 상생을 내걸고 향토기업으로서 더 양한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현지 업체들과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찬승 홍보팀장은 "송가인 씨가 앞세주 모델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보해양

조와 앞세주에 관한 네티즌과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전라도의 자랑 송가인이 앞세주 모델이 된 만큼 2020년 창립 70주년을 맞는 보해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기아차 3세대 K5 출시...사전예약 1만6천대 '최다'

기아자동차 대표 세단 'K5'가 강렬한 디자인과 다양한 첨단 기능을 갖춰 출시됐다. 사전계약이 1만6000대를 넘어 기아차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12일 서울시 광진구 위귀호호텔 비스타홀에서 3세대 K5 출시 행사를 하고 전국 영업망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3세대 K5는 2015년 7월 출시 이후 4년 만에 선보인 완전변경 모델이다.

3세대 K5는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눈에 띈다. 몸집을 키워 실내 공간이 넓어졌고 음성 명령 제어 기능,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공기 청정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추가돼 안전·편의성을 높였다.

3세대 K5는 휠베이스(바퀴간거리)가 50mm, 전폭이 25mm 늘어나 동급 최대 수준의 공간을 확보했다. 여기에 전고(높이)는 20mm 낮아져 스포츠카 모습을 갖췄다.

차량 전면부는 기존 기아차 상징인 '타이거 노즈'(Tiger Nose)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와

의 경계를 허물었다. 헤드램프 걸 라인을 감싸는 주간주행등(DRL)은 심장박동(바이트 사인)을 연상시키는 'v' 모양으로 만들었다.

짧은 트렁크 라인에 더해 측면부의 손잡이로 이어지는 선을 일자형으로 길게 트렁크 부분까지 빼 길고 날렵한 이미지를 구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시보드에는 터치 타입 방식이 적용된 공조 제어장치, 테마형 12.3인치 대화면 클러스터, 10.25인치 내비게이션 등이 설치됐고 플로어 콘솔에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 후대폰 무선 충전 트레이 등이 적용됐다.

미세먼지 센서가 포함된 공기 청정시스템이 기아차 최초로 장착됐다. 실내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4단계(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로 공조장치에 표시하고 나쁨이나

매우 나쁨일 경우 고성능 공기 필터를 자동으로 작동시킨다.

3세대 K5는 지난달 사전예약 시작 후 전날까지 21일 동안 1만6000대 넘게 예약이 이뤄져 기아차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신형 K5 가격은 가솔린 2.0 모델 2351만원, 가솔린 1.6 터보 2430만원, LPi 2.0 2636만원, LPi 2.0 렌터카 2090만원, 하이브리드 2.0 2749만원부터 시작한다. (가별소비세 3.5% 기준) /박정욱 기자 jwpark@



기아차 '3세대 K5'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